

0-1 정관절제술 후 10년 이상 경과한 153예에서 정관복원술의 수술 경험

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

박남철 · 엄박천 · 박현준 · 박 언 · 이경미

목 적: 정관절제술은 남성에서 수태조절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영구불임술로서 1980년에서 1990년 초반 사이에 시행된 예에서 정관복원을 원하는 경우가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다. 따라서 정관절제술 후 10년 이상의 장기적 폐색 후 시행된 정관복원시 성공률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.

대상 및 방법: 1983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정관절제술 후 10년 이상 경과한 환자에서 정관복원술을 시행한 153예를 대상으로 의무기록과 전화 상담을 통해 해부학적 성공률 및 임신률 그리고 수술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조사 비교하였다.

결 과: 대상군의 연령은 평균 41.6세 (30~57세), 정관절제기간은 평균 141.1개월 (120~240개월)이었다. 수술동기 (n=145)는 자녀를 더 원하는 경우가 63예 (43.5%)로 가장 많았고, 재혼이 36예 (24.8%), 아들을 원하는 경우가 27예 (18.6%), 자녀의 사망이 13예 (9.0%) 그리고 정관절제 후 합병증 6예 (4.1%) 순이었다. 정관절제기간 (n=153)은 10~14년 130예 (85.0%), 15~19년 15예 (9.8%), 20년 이상 8예 (5.2%)였다. 2001년 12월까지 추적조사가 가능하였던 98예에서 해부학적 성공률 및 임신률은 각각 81.6% (80/98) 및 36.0% (31/86)였다. 정관절제기간에 따른 각각의 해부학적 성공률 및 임신률은 10~14년군이 79.8% (67/84) 및 40.3% (27/67), 15~19년군이 100% (8/8) 및 50% (3/6) 그리고 20년 이상군이 83.3% (3/6) 및 25% (1/4)이었다. 그 외 수술방법, 근위부 정관액 유무, 정자육아종의 유무, 정관문합 부위 및 봉합사 등의 수술 관련 인자에 따른 해부학적 성공률 및 임신률은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($p>0.05$).

결 론: 정관절제술 후 10년 이상 경과한 환자에서 정관복원술을 시행한 결과 해부학적 성공률 80%, 임신률 30% 이상의 비교적 우수한 수술성적을 나타내었다. 향후 최근의 보조생식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이들 환자들에 대해서 임신률을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.

0-2 자궁내막증을 갖는 불임환자의 체외수정시술에 관한 연구: 중등도 및 중증 자궁내막증

서울여성병원 불임클리닉¹, 불임연구소²

정병준¹ · 유미진² · 김명신² · 김종식² · 강은희¹ · 심종욱¹ · 송현진¹

목 적: 전반적인 자궁내막증이 체외수정시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, 특히 Stage III-IV 자궁내막증을 갖는 불임환자 체외수정시술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

대상 및 방법: 1998년 9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진단복강경을 통해 자궁내막증으로 진단된 환자 중 체외수정시술을 시행받은 91명 131주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Stage III-IV의 자궁내막증을 갖는 환자는 27명 34주기였다. 비교군은 이시기에 진단된 순수 난관원인으로 체외수정시술을 시행한 40명